

진로성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최 윤 미

강원대학교

이 문 희*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종단적 접근인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성숙 변화 패턴을 추정하고, 심리적 변인을 중심으로 진로성숙 변화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자료의 중3, 고1, 고2, 고3 총 4 년간의 종단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중3에서 고3까지 4년간의 진로성숙 발달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진로성숙의 초기치(중3)에 있어서 여학생일수록,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높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진로성숙의 변화율은 자아존중감, 자기신뢰,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부모스트레스, 친구 스트레스, 우울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우울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우울이 높은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큰 폭으로 진로성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한 연구의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주요어: 진로성숙 발달, 다층모형, 위험요인, 보호요인, 종단연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문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Tel: 02-3277-2637, E-mail: moonilmh@ewha.ac.kr

직업은 경제적 욕구 충족과 더불어 많은 심리적·사회적 욕구를 충족 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개인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성격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김영태, 2005). 직업의 선택이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간과 경험에 따라 변화하여 성숙하는 지속적인 과정이기에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 과업 성취에 직면해 있는 청소년에게 있어 자신의 진로성숙과 관련된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진로성숙 발달에 있어 청소년기가 갖는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많은 진로발달 이론가들(Crites, 1974; Super, 1990)은 청소년기를 진로관련 의식 및 태도발달의 중요한 시기로 주목하고 있다. Super(1953)는 청소년기의 진로발달과 선택이 바로 자아개념의 실천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아에 대한 객관적 이해보다는 주관적 이해와 주체로서의 자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직업선택을 자아개념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고 진로발달을 자아와 환경 간의 조화를 향상시키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기에 수퍼의 이론을 자아개념이론이라고도 한다(이희영, 2003). 진로성숙이라는 중요한 과제는 청소년의 학업적 능력향상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올바른 자기관과 건강한 내적 상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학업부담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각종 정신적인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해 진로성숙과 관련이 깊은 개인의 심적 상태에 대한 인식과 풍부한 연구 결과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효율적 개입에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Super의 자아개념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진로성숙의 촉진 및 저해와 관련이 깊은 심리적 변인들에 관심을 갖고 심리적 변인 내 진로성숙을 촉진시키는 보호요인과 저해시키는 위협요인을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한다. 위협요인-보호요인 패러다임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개인적 특성에는 행동문제를 야기하는 위협요인과 보호요인이 함께 존

재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김선희, 2000). 따라서 진로성숙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처한 현상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협요인과 보호요인을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위협요인과 보호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심리적 변인들과 관련하여 진로성숙을 촉진시키는 보호요인에 대해 탐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개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과 같은 자기관과 관련된 변인들이 대부분이다. Super(1990)는 직업선택을 자기개념의 표현이라고 할 만큼 한 개인은 자기개념과 일치하는 진로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실제 몇몇 연구에서도 자기개념이 높은 청소년들은 진로성숙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강경찬, 1997; 김현옥, 1989; 이기학, 1997; Englander, 1960; Wallace-Brosious, Serafica & Osipow, 1994). 자아존중감 역시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이 높은 변인으로 주목되고 있는데, Korman(1970)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인지균형을 유지하려 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무관한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인지적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Crook, nealy와 O'Shea(1984)는 자아존중감과 진로태도, 학업 및 직업 성취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성숙한 진로태도를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몇몇 연구들(박은혜, 2006; 이복원, 2008; 최형규, 2000)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 진로성숙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는데 Luzzo(1993)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사결정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Kornspan과 Etzel(2001)의 연구에서도 진로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을 예언하는데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제시하였다. Luzzo(1995)는 역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내외 통제성 중 어느 변인이 진로성숙을 예언하는데

더 영향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기신뢰는 자신의 생활역량에 대한 전반적인 믿음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백혜정, 2007),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Bandura, 1986)을 의미하며 자아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김요셉, 2009; 이한나, 김재형, 김동기, 2009). 이한나, 김재형, 김동기(2009)은 자기신뢰가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 통제력은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 이현주(1998)와 박정희(2007)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통제력과 진로미결정수준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며, 황설영(2005)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청소년들은 진로를 계획하는데 더 효과적이며 진로결정수준이 높고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었으며 진로와 관련된 목표를 정하는데 자신감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자아관과 관련된 주요 변인들은 진로성숙과 긍정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별적인 영향에 관심을 기울였을 뿐 통합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자기개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자기신뢰, 자기통제가 진로성숙을 촉진시키는 보호요인으로 볼 수 있다면 반면 진로성숙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심리적 변인으로는 불안, 스트레스, 우울 그리고 공격성과 같은 정신건강 관련 변인들이다. 국내외적으로 관련 연구들이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reenhaus와 Sklarew(1981)는 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은 정보를 왜곡하거나 부적절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적극적인 탐색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Fuqua, Newman과 Seaworth(1988) 역시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거나 자신의 흥미, 욕구, 능력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는데 불안이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특성불안과 진로성숙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연구들(김경태, 2002 김관환, 1997;)이 있지만 김민정(2006)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수준에 불안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지속적 탐색이 요구된다.

스트레스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그들의 진로결정 혹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인데 그 중 박선희(2009)와 강유리(2006)의 결과가 대조적이다. 박선희(2009)는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반면 강유리(2006)는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을 오히려 강화시켜준다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진로선택이나 취업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를 촉진함으로써 개인이 보다 확실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중 장옥수(2005)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진로성숙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부분적으로 진로성숙과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보고한 바 있다.

우울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몇몇 연구들은 우울이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관련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성우, 2008; Saunders, Peterson, Sampson, & Reardon, 1999; Lucas, Skokowski, & Arcis, 2000; Saunders, 2000; Smith, & Betz, 2002;). Lucas, Skokowski와 Arcis(2000)는 직업적 의사결정에서 어려움이 우울과 연관이 깊다고 설명하였으며, Smith와 Betz(2002)와 Saunders 외(1999)는 우울이 진로결정과 부적적으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고하면서 우울한 개인은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진로의사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지만 이성우(2008)는 진로결정이 되어 있지 않을수록 우울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주요 문제영역인 공격성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는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이다. 하지만 공격적인 성향이 높은 경우 가족, 교사, 또래와의 관계문제에 어려움을 동반하면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적응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4)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적대적 공격성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나타낸다는 것(김경아, 2008; 한미현, 유안진, 1996;)을 고려한다면 공격성과 청소년의 진로성숙과의 관련성은 관심을 갖고 검토되어야 할 영역이다.

이제까지 검토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갖는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은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반면 우울, 불안, 공격성,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Skorikov(2007)는 주관적 안녕감과 정신건강이 성공적인 직업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면서 진로준비는 자기 존중감, 삶의 만족, 자기실현, 자기 효능감, 정서적 안정성,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울과 불안과는 부정적으로 관련성을 갖는다고 설명하면서 진로성숙에 대한 위협요인과 보호요인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면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한 바 있다. 하지만 Skorikov(2007)의 연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동일 시점의 자료를 사용하여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설명하면서 변인들 간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발달의 경우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진로발달의 과정에 근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횡단연구만으로는 이론에 대한 완전한 검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진로발달수준의 변화에 대한 올바른 추론을 위해서는 개인의 반복측정치를 바탕으로 한 검증이 요구되며 그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박효희, 성태제,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Super(1953)의 자아개념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진로성숙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고, 심리적 변인들이

진로성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아존중감, 자기신뢰, 자기통제를 보호요인으로 스트레스, 공격성, 우울을 위협요인으로 설정하여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패널자료(KYPS)에서 4년 동안 수집된 자료를 통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 첫째, 청소년들의 진로성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가?
- 둘째, 청소년의 진로성숙의 초기상태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는가?
- 셋째, 청소년의 진로성숙의 성장에 개인차가 존재하는가?
- 넷째, 부모의 학력과 학생의 성별이 진로성숙의 초기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가?
- 다섯째, 위협요인(공격성, 스트레스, 우울)과 보호요인(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 자아통제)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여섯째, 위협요인(공격성, 스트레스, 우울)과 보호요인(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 자아통제)이 진로성숙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

방 법

연구대상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 패널조사(KYPS) 자료 중 패널 2차에서 5차까지의 조사자료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3년부터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 가운데 층화다단계 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에 의해 추출된 3,449명의 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정신건강관련변인 중 우울의 경우 2차년도부터 조사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자료는 제외하였으며 질적으로 다른 경

표 1. 진로성숙 문항

번호	문항 내용
1	향후 진로설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2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3	향후 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가보고 싶은 진로가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 힘들다
4	나는 현재, 내가 가보고 싶은 향후 진로가 자주 바뀐다
5	나는 현재, 향후 진로설정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6	미래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진로를 미리 결정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7	나는 현재, 나의 향후 진로설정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표 2. 자아존중감 문항

번호	문항내용
1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험을 시작하는 대학 진학 이후인 5차년도 자료 또한 배제되었다. 결측치 처리는 단순 대입(single imputation)이나 기대-최대화(EM Algorithm)가 오차를 과소 추정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후보 값을 구하여 그 중에서 무작위로 대체값을 선정하는 다중삽입(Multiple imputation)을 사용하였다(Allison, 2000).

측정도구

진로성숙

진로성숙의 측정을 위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하여 타당화한 한국형 진로성숙도 검사(장석민, 임두순, 송병국, 1991) 중 한국청소년 패널에서 선별한 7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문항들은 모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역코딩으로 처리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 시점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0.79, 0.80, 0.83, 0.86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묻는 문항은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문항들은 모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5, 6번 문항은 역코딩으로 처리되었다. 다섯 시점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0.74, 0.75, 0.76, 0.76으로 나타났다.

자기신뢰

자기신뢰를 묻는 문항은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문항들은 모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신뢰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 시점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0.87, 0.86, 0.85, 0.87로 나타났다.

표 3. 자기신뢰 문항

번호	문항내용
1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2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3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표 4. 자기통제 문항

번호	문항내용
1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2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3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4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5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6	나는 학교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

표 5. 스트레스 문항

번호	하위척도	문항내용
1	부모 스트레스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2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3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4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5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6	학업 스트레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7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8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9	친구 스트레스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0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1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2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3	생활 스트레스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4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5		멋있는 옷을 입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7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7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아통제

자아통제를 묻는 문항은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문항들은 모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모두 역코딩으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도록 하였다. 다섯 시점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

pha)는 각각 0.87, 0.86, 0.85, 0.87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묻는 문항은 총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문항들은 모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표 6. 공격성 문항

번호	하위척도	문항내용
1	신체공격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2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4	분노공격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5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6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표 7. 우울문항

번호	문항내용
1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2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3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4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 시점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0.91, 0.88, 0.88, 0.90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공격성을 묻는 문항은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문항들은 모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 시점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0.79, 0.76, 0.77, 0.80으로 나타났다.

우울

우울 문항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표 7에 제시하였다. 문항들은 모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방법

진로성숙의 변화를 추정하고 그 변화에 있어서 개

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다층모형(multilevel models)을 적용하였다. 다층모형은 HLM(Hierarchical Linear Models)이라고도 하다. 다층모형에서는 1단계에서는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2단계에서는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한다. 선형모형의 예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text{단계: } Y_{ti} = \pi_{0i} + \pi_{1i}T_{ti} + eti, \quad eti \sim N(0, \sigma^2)$$

위 식에서 Y_{ti} 는 개인 i 의 측정시점 t 에서의 측정치를 나타내며, T_{ti} 는 개인 t 의 측정시점에 따른 시간 코딩값이 된다. T 의 첨자 ti 는 개인에 따라서 측정횟수와 측정시점에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초기시점을 0으로 코딩하게 되면 π_{0i} 는 개인 i 의 초기치(initial status)를 나타내고 π_{1i} 는 변화율(change rate)이 된다. eti 는 시점 t 에서의 개인 i 에 대한 오차이다. $eti \sim N(0, \sigma^2)$ 는 eti 가 평균이 0, 공분산 σ^2 를 가지는 정상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나타낸다.

$$2\text{단계: } \pi_{0i} = \beta_{00} + r_{0i}$$

$$\pi_{1i} = \beta_{10} + r_{1i}$$

위 식에서 β_{00} 와 β_{10} 는 각각 초기치와 변화율의 전

표 8. 주요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	중3	고1	고2	고3
자기존중감	3.27(.63)	3.31(.61)	3.34(.61)	3.42(.61)
자기신뢰	3.47(.71)	3.52(.71)	3.56(.69)	3.65(.69)
자기통제	3.29(.69)	3.34(.68)	3.35(.66)	3.35(.66)
진로 성숙도	3.53(.79)	3.61(.74)	3.59(.76)	3.74(.799)
부모 스트레스	2.74(.92)	2.72(.83)	2.66(.81)	2.58(.85)
학업 스트레스	3.01(.87)	3.19(.86)	3.24(.87)	2.96(.90)
친구 스트레스	2.17(.88)	2.09(.81)	2.04(.79)	1.93(0.79)
생활 스트레스	2.66(.88)	2.61(.82)	2.58(.83)	2.52(.85)
공격성	2.94(.74)	2.87(.70)	2.85(.69)	2.81(.72)
우울	2.70(.80)	2.67(.76)	2.67(.77)	2.61(.77)

체 평균을 나타낸다. r_{0i} 와 r_{1i} 는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의 개인 i 의 무선효과(random effect)를 나타낸다. 이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크면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 간의 차이는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초기치와 변화율 사이의 분산-공분산 행렬 T 는 아래와 같다.

$$T = \begin{bmatrix} T_{00} & T_{01} \\ T_{10} & T_{11} \end{bmatrix}$$

여기서 T_{00} , T_{11} 는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을 나타낸다. T_{01} , T_{10} 는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을 나타낸다. 다층모형은 HLM 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치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수인 진로성숙은 중3을 시작으로 고3까지 점차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 다층성장모형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CC(Intraclass Correlation)

ICC는 총 분산 중 2수준의 분산의 비율을 의미하

며, 종단연구에서 ICC는 전체의 분산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분산의 비율이므로 개인효과를 의미한다. 청소년의 진로성숙을 4차 년도에 걸쳐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였을 때 1수준인 측정시점의 분산 추정치는 0.389로 나타났고, 2수준의 분산 추정치는 0.2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4차 년도에 걸친 청소년 진로성숙의 ICC는 0.36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 효과 비율이 3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대한 기초 선형 성장 모형

청소년의 진로성숙의 변화에 대해 선형 성장 모형을 적용하였다. 무조건 평균 모형과 선형 성장 모형을 적용한 후의 오차를 비교한 결과 시간이라는 변수를 투입하여 약 13%의 설명력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형 성장 모형을 적용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초기값의 평균은 3.53으로 나타났다. 성장률의 평균은 0.05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진로성숙이 1년이 증가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0.0597씩 증가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초기값에 대한 분산 추정치는 0.2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진로성숙의 초기값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진로성숙의 성장률에 대한 분산추정치는 0.0263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진로성숙이 증가하는 정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시간이 지남에

표 9. 진로성숙의 기초 선형 성장 모형

고정 효과	계수	표준오차	자유도	t
초기값(β_{00})	3.5330	0.0127	1197	279.036*
성장률(β_{01})	0.0597	0.0055	1103	10.941*
무선 효과	분산추정치	표준편차	자유도	χ^2
초기값(τ_0)	0.2706	0.5202	3363	7195.362*
성장률(τ_1)	0.0263	0.1622	3363	4666.782*
1수준 오차(e)	0.3393	0.5825		

* $p < .001$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에 있어 개인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치와 성장률의 공분산은 -0.03289이었으며, 상관계수는 -0.3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의 진로성숙이 높은 학생들의 추후 진로성숙의 증가 속도가 초기에 진로성숙이 낮은 학생들의 추후 진로성숙의 증가 속도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대한 조건 선형 성장 모형

청소년의 진로성숙의 초기값과 성장률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개인차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기신뢰, 자기통제, 스트레스, 공격성, 우울, 그리고 성별 및 부모의 학력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자기존중감, 자기신뢰, 자기통제, 스트레스, 공격성, 우울은 시간 의존적 변수로 1수준에 투입되었고, 성별, 부의 학력, 모의 학력은 시간 독립적 변수로 2수준에 투입하였다. 각 심리적 변인들은 초기값의 해석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평균중심화(grand mean centering)를 적용하였다. 이때 초기치는 각 변인이 평균적 값을 가질 때의 초기치를 의미한다. 청소년의 각 시점에서의 진로성숙을 설명하기 위해 각 시점에서의 자기존중감, 자기신뢰, 자기통제, 스트레스, 공격성, 우울을 변수로 투입하였으며, 이러한 심리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초기값과 성장률의 개인차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심리적 변수들의 진로성숙에 대한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1수준: Y_{it} = \pi_{0i} + \pi_{1i}T_{it} + \pi_{2i}(\text{자아존중감}) + \pi_{3i}(\text{자기신뢰}) + \pi_{4i}(\text{자기통제}) + \pi_{5i}(\text{부모스트레스}) + \pi_{6i}(\text{학업스트레스}) + \pi_{7i}(\text{친구스트레스}) + \pi_{8i}(\text{생활스트레스}) + \pi_{9i}(\text{공격성}) + \pi_{10i}(\text{우울}) \quad e_{it} \sim N(0, \sigma^2)$$

$$2수준: \pi_{0i} = \beta_{00} + \beta_{01}(\text{성별}) + \beta_{02}(\text{부의 학력}) + \beta_{03}(\text{모의 학력}) + r_{0i}$$

$$\pi_{ij} = \beta_{j0} + \beta_{j1}(\text{성별})$$

다른 심리적 변수가 평균적 값을 가질 때의 초기치에 대해서 성별, 부의 학력, 모의 학력이 0인 경우의 평균값은 3.6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고, 부와 모 모두 학력수준이 '저'인 경우의 초기치의 평균값이 3.6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효과는 -0.172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초기값에 있어 0.172만큼 작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모의 학력은 두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부모학력 저집단으로, 대학이상을 부모학력 고집단으로 포함시켰다. 그 결과 부의 학력변수와 모의 학력변수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값에 있어 부와 모의 학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부의 학력이 '저'인 집단과 '고'인 집단의 초기치의 평균 차이는 0.0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학력이 '고'인 집단이 '저'인 집단

표 10. 진로성숙의 조건 선형 성장 모형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자유도	t
초기값					
평균		3.608	0.018	3360	199.627***
성별(0=여자,1=남자)		-0.172	0.024	870	-7.260***
부의 학력(0=저, 1=고)		0.055	0.021	3360	2.576**
모의 학력(0=저, 1=고)		0.058	0.024	3360	2.397*
성장률					
평균		0.038	0.007	1184	5.455***
성별		-0.002	0.010	888	-0.151
자기존중감	평균	0.056	0.020	171	2.891*
	자존중감*성별	0.019	0.027	102	0.683
자기신뢰	평균	0.125	0.015	252	8.117***
	자기신뢰*성별	0.002	0.021	358	0.083
자기통제	평균	0.087	0.016	720	5.308***
	자기통제*성별	0.018	0.023	446	0.796
부모 스트레스	평균	-0.098	0.014	234	-6.905***
	부모스트레스*성별	0.020	0.019	2119	1.059
학업 스트레스	평균	0.017	0.013	1132	1.319
	학업스트레스*성별	0.020	0.017	13432	1.157
친구 스트레스	평균	-0.091	0.013	2195	-6.972***
	친구스트레스*성별	0.019	0.019	975	1.004
생활 스트레스	평균	0.026	0.013	13432	1.959
	생활스트레스*성별	-0.011	0.020	450	-0.535
공격성	평균	0.018	0.015	13432	1.194
	공격성*성별	0.014	0.021	2179	0.657
우울	평균	-0.037	0.016	103	-2.306*
	우울*성별	-0.073	0.023	64	-3.162*
무선효과		분산추정치	표준편차	자유도	χ^2
초기값(γ_0)		0.160	0.401	3360.000	9147.94***
1수준 오차(e)		0.372	0.610		

* $p < .05$, ** $p < .01$ *** $p < .001$

보다 초기값에 있어서 0.055만큼 높은 것을 나타낸다. 모의 학력 역시 '저'인 집단보다 '고'인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0.0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에 있어서는 성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의 평균은 0.0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심리적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일 때 1년이 지날 때마다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0.038씩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학력과 성별이 진로성

숙의 초기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컸으며 부모의 학력변수의 모수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초기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존중감의 영향력의 평균은 0.056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자기존중감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진로성숙은 0.056만큼 증가하는 것을 뜻하며 자기존중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서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신뢰의 영향력의 평균은 0.125이며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진로성숙은 .0125만큼 증가하며 역시 성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자기통제의 영향력은 0.087이며 평균적으로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진로성숙이 0.087만큼 증가한다.

부모 스트레스의 영향력의 평균은 -0.098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부모 스트레스 요인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진로성숙도는 0.098감소함을 의미한다. 친구 스트레스의 영향력의 평균은 -0.091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친구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로성숙도에 대한 부모 및 친구스트레스의 효과에 있어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영향력의 평균은 -0.0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집단의 경우 우울이 1 높을 때 진로성숙도는 평균적으로 0.037만큼 감소함을 의미한다. 또한 우울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효과는 성별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의 효과는 -0.0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인 경우 우울이 진로성숙도를 더 큰 폭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학생의 평균 감소폭보다 0.073 더 큰 감소폭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이밖에 학업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 공격성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으며 성별의 효과도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존중감, 자기신뢰, 자기통제가 증가할수록 진로성숙도 역시 증가하면서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고 반면 부모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우울이 증가함에 따라 진로성숙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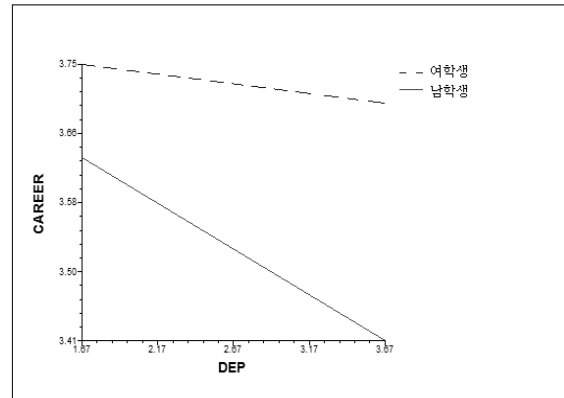


그림 1. 진로성숙에 미치는 성별과 우울의 상호작용

논 의

본 연구는 중,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이 시간에 따라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아관과 관련된 변인들(자아존중감, 자기신뢰, 자기통제)을 보호요인으로 설정하고 정신건강 관련 변인들(스트레스, 공격성, 우울)을 위험요인으로 설정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로성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발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무조건 모형에서의 진로성숙 발달의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여 4년간의 진로성숙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교 2학년을 시작으로 청소년의 진로성숙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선행연구의 결과들(박완성, 2007; 박효희, 성태제, 2008; 이중범, 2007)과 일관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시간에 따른 진로성숙을 촉진시키는 관련변인들의 탐구가 지속적으로 필요

할 것이다.

둘째, 성별 및 부모학력이 4년간의 진로성숙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각각의 변인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있어 중3의 초기치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진로성숙이 더 높았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의 변화율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남, 녀 간의 진로성숙이 비슷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때문에 중3 초기치에서 나타나는 성별에 따른 차이 즉 여학생의 진로성숙이 남학생보다 높은 양상이 4년 간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또래에서의 성차를 비교한 횡단연구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진로성숙이 더 높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김상혁, 2001; 이기학, 1997; 이기학, 한종철, 1997; Fouad, 1988; Hartung, 1997;)와 일치한다. 적어도 진로성숙의 초기치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성숙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성별 차이에 기여하는 여러 변인들의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자아관과 관련된 변인들(자아존중감, 자기신뢰, 자기통제)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이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신뢰가 높을수록, 자기통제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진로성숙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Super(1996)의 자아개념이론에 부합하는 결론이며 선행연구들(박은혜, 2006; 이복원, 2008; 최형규, 2000; Crook et al, 1984; Korman, 1970; Luzzo, 1993;)의 결과와도 일관적이다. 이는 청소년의 진로성숙의 발달을 위해 진로정보와 구체적인 진로계획에 편중하는 대신 자신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긍정적인 자기관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이러한 결과에 부합하는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수정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보급으로 학교장, 교사,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

넷째, 부모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 공격성, 우울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부모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우울의 경우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친구와 부모에게서 받는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지도 전문가들은 주변 중요 인물과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친구, 부모)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우울의 경우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으며 성별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우울한 청소년은 진로성숙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울이 진로 결정에 부정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 횡단연구들(이성우, 2008; Saunders et al, 1999; Lucas, Skokowski, & Arcis, 2000; Saunders, 2000; Smith & Betz, 2002;)과 일관적인 결론이다. 즉, 우울한 청소년은 자신의 진로성숙을 증가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문제해결 활동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증 조사에서 27.2%가 우울증 유병율을 보였다는 결과(김명식, 2008), 800명의 고등학생 중 60%가 우울상태의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김기정, 2009)를 함께 고려한다면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우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청소년의 중요한 발달과업은 진로성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성숙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지만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 특히 우울상태에 대한 개입이 매우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심각한 우울증의 경우 대인관계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살충동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청소년의 심각성에 따라 심리치료와 진로상담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건강에 대한 환기를 높이는 주기적인 특강 혹은 자살예방교육, 자살 예방 또래 조력자(gate keeper)의 보급은 이러한 청소년 우울에 대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성별에 따라 우울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는데 남학생의 경우 우울이 진로성숙을 더 큰 폭

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학생의 감소폭보다 더 큰 감소폭을 보이는데 우울한 남학생의 경우 진로성숙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남학생의 가파른 감소를 탐색하는 관련 연구들이 필요하다.

추가로,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진로성숙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는 못하였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 스트레스가 진로성숙을 오히려 강화시켜 준다는 강유리(2006)의 결과와 연관이 지어 설명할 수 있다. 취업스트레스나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오히려 진로에 대한 고민을 촉진시켜서 결국 진로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생활스트레스는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나 친구스트레스에 비해서 외모와 용돈부족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진로성숙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공격성의 경우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학업 중단 등의 이유로 본 연구의 설문지에 응답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Super(1996)의 자아개념 이론에 기반을 두고 청소년의 진로성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과중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부담감 등이 청소년의 자아관과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위험요인이 청소년의 발달과업 중 하나인 진로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향후 청소년의 진로성숙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신건강의 개선이 중요한 세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경우 주요 변인들에 있어 한국청소년 패널조사(KYPS)에서 이미 제작된 척도들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진로성숙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패널조사에서 제작된 변인 이외에 다양한 변인들이 관여하고 있기에 변인선정에 있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대규모로 조사된 자료이므로 청소년 모집단을 대표한다는 점,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지만 각각의 척도가 충분한 수의 문항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청소년 패널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경찬 (1997).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포부 관련변인 탐색**.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유리 (2006). **무용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아 (2008). **청소년의 공격성 변동의 영향 요인 : 3년 종단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태 (2002). **특성불안과 비합리적 신념이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이 미치는 영향.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학생의 비교**.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정 (2009). **청소년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취약요인과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37(1)**, 29-55.
- 김명식 (2008). **도시의 남녀 중학생 우울증 유병율과 우울증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9(2)**, 645-658.
- 김민정 (2006).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혁 (2001). **고등학생의 지역 및 계열에 따른 진로성숙도에 관한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탐색**.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요셉 (2009).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기신뢰감이 청소년기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태 (2005).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광운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34(2), 81-105.
- 김현옥 (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관환 (1997).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실시방법과 불안 및 자존감이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희 (200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완성 (2007).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진로교육학회**, 20(4), 87-101.
- 박은혜 (2006). **자아존중감, 부모의 양육태도 및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연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희 (2007).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불안/우울, 강박증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자기통제력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효희, 성태제 (2008). **성별 진로성숙도 변화에 있어 부모-청소년 자녀 유대가 미치는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9(1), 117-142.
- 백혜정 (2007). **자아통제, 자기신뢰 및 교사애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9(2), 357-373.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아 존중감, 직업 가치, 내외 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 한중철 (1997). **고등학생의 성별 및 계열별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정도의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35-349.
- 이복원 (2008). **청소년의 애착요인 및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우 (2008). **진로결정이 불안과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범 (2007). **초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변화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13(2), 115-134.
- 이한나, 김재형, 김동기 (2009). **청소년의 진로활동 경험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신뢰 및 부모애착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8, 129-148.
- 이희영 (2003).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 학지사.
- 이현주 (1998).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4). **청소년 자기 보고형 문제행동평가척도의 개발: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7(1), 147-170.
- 장석민, 임두순, 송병국 (1991).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요강**. 연구보고 RR 91-5-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장옥수 (2005).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 및 스트레스수준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형규 (2000). **중학생의 자기 존중감 및 인성특성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 유안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지각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 173-188.
- 황설영 (2005). **문제해결검사의 타당화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lison, P. D. (2000). **Multiple imputation for missing data: a cautionary tale**.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8, 301-309.
- Bandura, A. (1986). **Self-efficacy mechanism in physio-**

- logical activation and health-promoting behavior. In J. Madden IV, S. Matthysee, & J. Barchas(Eds), *Adaptation, learning, and affection*. New York: Raven Press.
- Crites, J. O. (1974). Career development processes: a model of vocational maturity. In E. L. Herr (Ed.), *Vocational guidance and human development* (pp. 296-320). Boston: Houghton Mifflin.
- Crook, R. H., Healy, C. C., & O'Shea, D. W. (1984). The linkage of work achievement to self-esteem, career maturity, and college achieve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5*, 70-79.
- Englader, M. E. (1960). A Psychological analysis of vocational choice. *Teach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7*, 257-264.
- Fouad, N. A. (1988). The construct of career maturity in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49-59.
- Fuqua, D. F., Newman, J. L., & Seaworth, T. B. (1988). Relation of state and trait anxiety to different compon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2), 154-158.
- Greenhaus, J. H., & Sklarew, N. D. (1981). Som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1-12.
- Hartung, P. J. (1997). *Achieving career maturit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05th, Chicago, IL, August, 15-19).
- Korman, A. K. (1970). Toward and hypothesis of work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4*(1), 31-41.
- Kornspan, A. S., & Etzel, E. F. (2001). The relationship of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variables to career maturity of junior college student athlet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2*(2), 122-132.
- Lucas, M. A., Skokowski, C. T., & Ancis, J. R. (2000). Contextual themes in career decision making of female clients who indicate depress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 316-325.
- Luzzo, D. A. (1993). Predicting the career maturity of undergraduates: A comparison of personal,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factor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4*, 271-275.
- Luzzo, D. A. (1995).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self-efficacy and locus of control to the prediction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6*, 61-66.
- Saunders, D. E. (2000). Relation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288-198.
- Saunders, D. E., Peterson, G. W., Sampson, F. P., & Reardon, R. C. (1999). Relation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288-298.
- Skorikov, V. (2007). Continuity in adolescent career preparation and its effects on adjus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 8-24.
- Smith, H. M., & Betz, N. E. (2002). An examination of efficacy and esteem pathways to depression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438-448.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Super, E. C. (1990). A life-span, life-space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other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pp. 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 Super, E. E., Savickas, M. L., & Super, C. M. (1996). The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s. In D. Brown, L. Brooks, & other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 121-178). San

Francisco: Jossey-Bass.

Wallace-Brosious, A., Serafica, F. C., & Osipow, S. H.
(1994).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Relationships to self-concept and identity statu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 127-149.

원 고 접 수 일 : 2011. 08. 30.

수정원고접수일 : 2011. 10. 26.

게 재 결 정 일 : 2011. 11. 08.

A Study on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fluencing Career Maturity in Adolescents

Choi, Yoon MI

Kangwon National University

Lee, Mun Hee

Ewha Womans University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pattern of change in adolescent career maturity and effect of gender, father and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stress, aggression, depression on its growth by using multilevel models. Interacting effects of gender on relations of career maturity with stress, aggression, depression were also scrutinized. A four year longitudinal data of the Korean Youth Panel Survey (KYPS) was employed. Results indicated that career maturity during four years linearly increased and the levels of career maturity at third grade of middle school were affected by gender and father and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positively, Growth rates of career maturity were influenced by self-esteem, self-trust, self-control positively and by stress from parent, stress from friend, depression negatively. Interaction between gender and depression affected career maturity.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development of career maturity, multilevel model, risk factors, protective factors

